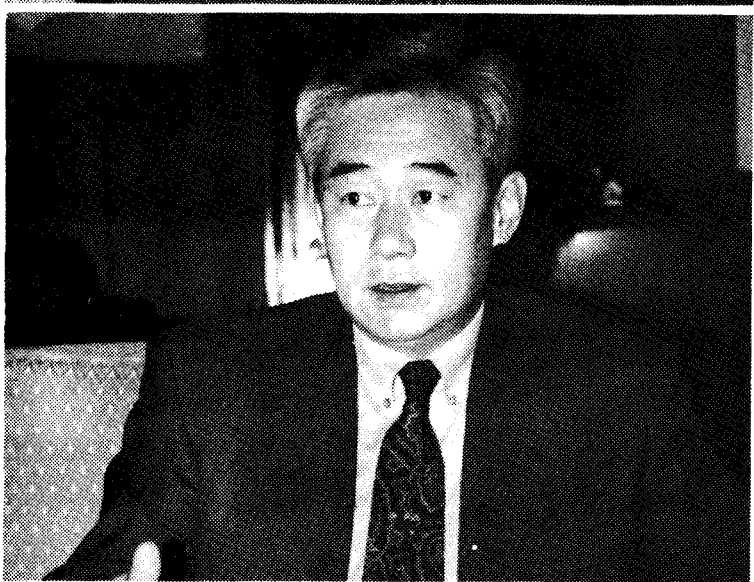


1997년 5월 12일 월요일

□ 조영원 총장 인터뷰

대학간 무한경쟁 '자신있다'



우리신문은 창간 42주년 및 개교 48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학교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또 계속되는 학내 제도 개선 속에서 나타나는 학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제10대 총장인 조영원 교수를 만나 보았다.

다음은 조영원 총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육시장의 개방은 곧 대학간 무제한 경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특성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학교는 우리학교만이 가진 독특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는 특성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과 국문학·체육·음악 등의 분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성화를 지향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우리 대학이 종합대학이라는 점이었습니

다. 종합대학은 다양한 학문영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고른 발전을 해야 하는데 특정학문 분야만의 발전은 순수학문과 실용학문의 고른 발전과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종합대학의 존재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부분에서 대학, 특히 종합대학에서 특성화를 추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각 학문영역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런 점이 종합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에 특정학문 영역에서의 특성화를 추구하는 일은 구성원들의 양보와 이해, 그리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특성화를 추구하는 일이며,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를 시행하고 이를 전 학문영역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는 축대로 활용한다면 종합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특정 영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21세기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의 양성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세기의 교육은 지금의 교육과는 많은 부분에서 그 양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며, 첨단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형태도 일반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예측 가능한

시대상황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특히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졸업할 때까지는 반드시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곧바로 사회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구촌으로 좁아진 국제화 사회에서 필요한 외국어 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자매교에 우리 대학 학생들의 파견을 확대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데도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의 우위는

특성화를

추구하는 일이다

저는 지난 1월 13일의 취임식에서 '실패할 수 있는 권리', '자율에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일정수준 이상의 실력을 스스로 배양하지 못할 경우 제약을 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의 캠퍼스는 학문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들의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은 어떤지.

당연한 지적이거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기여해 주신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기여가 오늘의 경희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자에 개교 50주년을 대비한 발전기금조성운동의 전개 등은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기여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모교가 동문들의 사회적 활동과 동문 상호간의 친교, 우의를 다지도록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쟁의 시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동문들에서 경희의 발전에 공이 많은 분들을 발굴하여 명예졸업장을 드리는 일,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여성동문 모임주선 등은 모교가 주관되어 동문들을 돕기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문회 활동이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지적은 아마도 동문들의 연락처 조차 마련되지 못해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하여 동문 찾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모교라는 이유만으로 동문들에게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여를 요구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학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문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동문회가 주관이 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문회관 건립 등에도 학교가 한부분을 담당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율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대학원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시책과 다른 우리 대학원의 독특한 특성화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욕구와 생각하지만, 학력 인플레이션상과 대중자들의 취업난이 일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우이든 대학원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학원은 심오한 학리를 연구하고 이를 응용하는 순수학문 과정과 일반 사회인을 위한 재교육 과정, 그리고 실용을 위한 전문화 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시 대학원의 설립목적으로 구분하면 순수학문 과정은 일반대학원이, 재교육 과정은 경영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이, 그리고 전문화 과정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응용을 수행하는 전문 대학원이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을 특성화하는 것은 각기 설립된 목적에 따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좁은 의미로는 대학의 특성화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의 특성화도 비교우위 영역에 대한 중점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가 올바른 성과를 얻기 위한 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제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외적 경쟁력을 갖

도록 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학부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제에 대한 실천적 경험이 부족했고, 인접학문간의 교류가 별로 없었던 우리 나라에서 학부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성패는 판가름 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 여간 학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과 우려가 있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부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학부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살려지기를 바랐으며,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학부제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저는 분명히 학부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이루는 데 기여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밝힌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부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고 학생들에게 불편한 제도라면 학부제의 지속을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상 도입된 제도라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원캠퍼스의 대학종합평가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서울캠퍼스가 종합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고, 오랜시간 평가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5년의 서울캠퍼스 종합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평가위원들에게 평가만을 위한 대비가 아니라 평가를 계기로 한단계 더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외형적이고 의존적인 재원의 투자와 단순히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학부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해친다면

시행을 고집하지

않을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98년도부터 장애인 특례입학생의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학교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시행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국내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완벽히 시행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그 시행 순서도 국립대학을 시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의 사립대학들은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가 재정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무리한 제도시행으로 또다른 불편만을 가져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립대학의 총체적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는 우리학교의 경우 63%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대학 재정 경영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지원은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의 총장들은 기업경영방식을 도입, 활용해야 하며 우리학교 또한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 학교의 이미지를 부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미국 LA에 분교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나라와 나라를 급속히 가까워지도록 했으며,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들의 국내 진입도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학은 일찍이 1960년대 초부터 대학의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해 온 대학입니다. 이런 결과 현재 세계 34개국 1백34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이제 한국의 대학만으로 머물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의 경쟁상대를 세계로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세계속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 LA에 분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LA분교 설립을 위해 현지 부지 매입, 진출할 수 있는 특성화 학과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물색과 진출을 위한 당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학의 해외진출에는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 결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필요하지만 성패를 충분히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창간 및 개교 기념 축하 메시지. 우리대학이 고향산 자락에 동지를 틔지도 벌써 48년이 되었습니 다. 또 대학주보가 창간된지도 4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경희는 물론 대학주보도 장년의 나이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장년의 나이를 맞이한 '경희'는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복지와 경희의 설립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해 역할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개교 50주년과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전환의 시기에 '경희'는 제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려 합니다.

구호적인 일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조용한 개혁', '대학다운 대학'을 가꾸어나가는 일에 전력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의 역사를 찾고 역사를 다듬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그대 살아 숨쉬다면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라는 글귀로 저의 감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광섭 기자)

더불어 함께하는 하이텔 -



미팅 할래? 나 요즘 채팅하느라 바빠!



강의시간표 확인 안해? 난 하이텔 SUG에서 벌써 끝냈지롱!

정보? 하이텔에서 쓱쓱 뽐아쓰자!



올 여름방학은 유럽에서~ 와~ 하이텔로 여행준비 끝!



난, 앞서는 대학생. 하이텔을 열고 인터넷세상으로 출발!



나만의 향수를 찾고싶어~ 하이텔 go beauty!



이 영화 벌써 봤어? 하이텔 시네마에 가봐~

온라인 가입/ 접속용 전화번호 및 화선속도(go con)

■서울 ■33,600bps 766-3360(02) ■28,800bps 741-0228(02) / 762-0228(02) ■14,400bps 745-2100(02) / 766-9696(02) ■부산 ■28,800bps 636-4001(051) ■대구 ■28,800bps 943-3880(053) / 952-3880(053) ■광주 ■28,800bps 514-3880(062) ■대전 ■28,800bps 633-3880(042) ■수원 ■28,800bps 258-0228(0331) / 43-2880(0331) ■전주 ■28,800bps 252-2225(0652) ■전국 ■2,400bps ~ 14,400bps 0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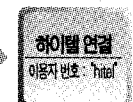


하이텔을 열면 환상의 세계 인터넷이 보인다. ■가입/문의전화 ■080-022-1410(콜러버 서비스) ■인터넷 매뉴얼 3월 31일까지 무료 http://www.kol.net ■02-513-2200 ■가입팩스: 02-511-2517

■기본 정보 이용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결제할 경우 5% 할인

구분	현행	요약요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9,900원	9,405원
지로결제	9,900원	

온라인가입 02-022-1410 콜러버 서비스 080-022-1410 인터넷 매뉴얼 3월 31일까지 무료



정보문화의 꽃 한국PC통신 Korea PC Telecom Co., Ltd.